

이사회, 총장후보추천 '2안'의결, 교수 2·학생-직원 1인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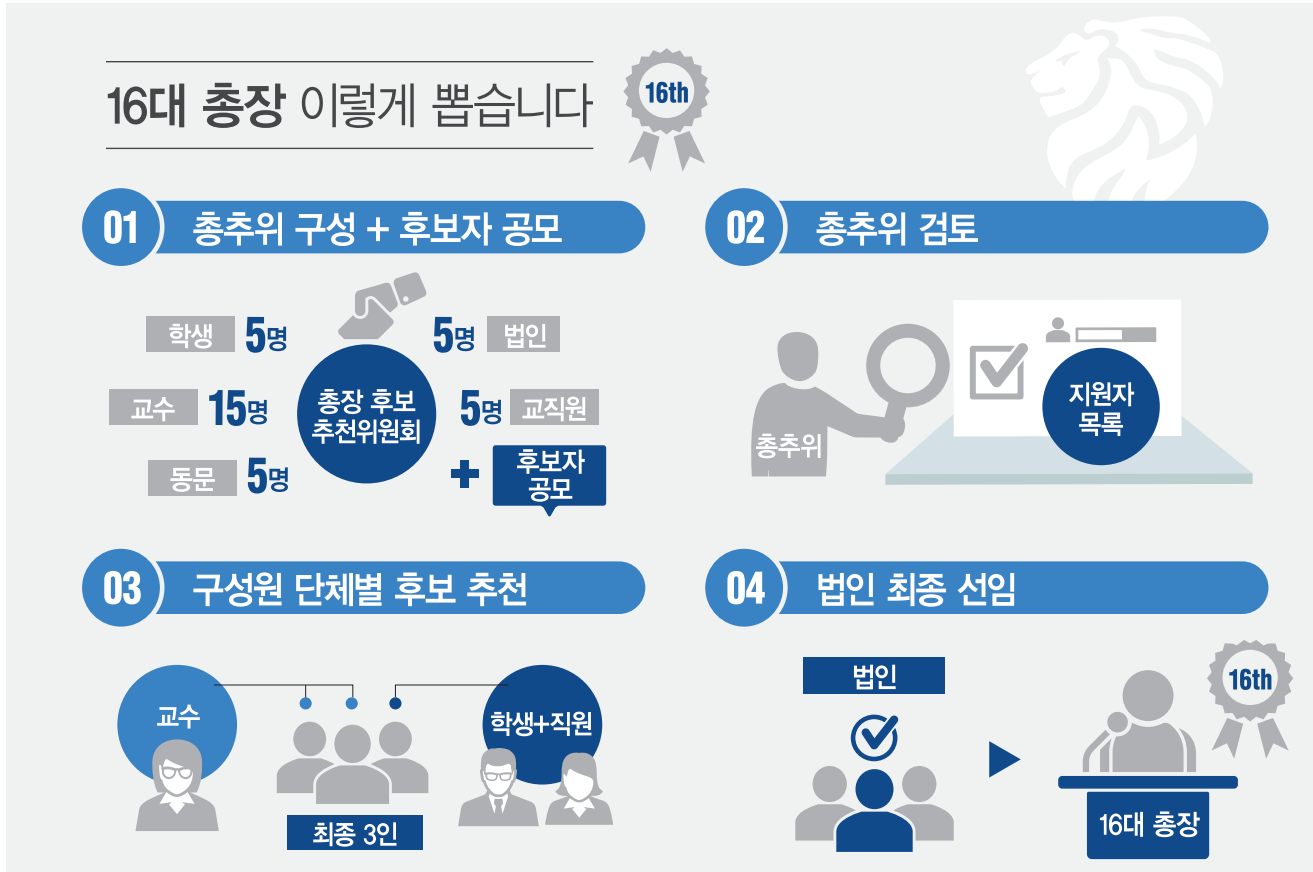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총장 후보 추천안이 구성원 단체별 추천(2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문을 지난 17일 구성원에게 발송했다. 결국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구성원 단체별 투표비율 추천안(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10개월간 이어지고 있던 대행 체제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구성원 사이 갈등이 이어져온 총장 후보 추천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지난 8월 28일 제 2차 법인 이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인 이사회는 박 대행으로 하여금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한 총장 후보 추천안을 확정지은 뒤 9월에 열릴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

제 2차 법인 이사회 이후, 지난 6일 박 대행은 구성원 간 투표 비율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학내 구성원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를 통해 교수와 학생 투표 비율은 각각 69%와 15%로 합의됐다. 하지만 직원과 동문이 나뉘어 남은 16%의 투표 반영 비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대행은 당시 열린 회의에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제 1노조) 한상 위원장에게 직원과 동문 투표 비율을 논의해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직원과 동문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안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또한 논의됐으며 위 사항을 교무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논의까지 이뤄졌다.

회의 이후 제 1노조 한상 위원장은 총동문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교수의 회 측에 1% 투표 반영 비율 양보를 요청했고 교수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직원과 총동문회의 논의가 이뤄져 지난 7일 한 위원장이 박 대행에게 최종 타결된 1안을 통보했다. 하지만 논의 이후 지



지난 20일 학교법인 경희학원 명의로 우리학교 총장을 새로 초빙한다는 소식이 여러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달됐다. 이사회가 총장후보추천안을 의결한 이후 우리학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총장 선임을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난 9일 오전, 경희학원 통합노조(제 2노조)와 민주총동문회는 교수의회 1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논의된 두 개의 총장 후보 추천안을 가지고 지난 9일 박 대행은 심의 기구인 임시 교무위원회를 소집했다. 박 대행은 지난 18일 이뤄진 우리신문과의 만남에서 “당시 이뤄진 교무위원회에서 대행 체제가 1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기 위해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교무위원회 논의

결과 조속한 총장 선출을 위해서는 2안 이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지난 11일에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박 대행은 논의된 두 개의 안을 보고했다. 박 대행은 당시 이사회에서 대학의 조속한 총장 선임을 위해선 2안이 적합하다는 교무위원회 의견을 제출했고 2안이 법인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당시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은 우선 법인 5명, 교수 15명, 학생 5명, 교직원 5명, 동문 5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하라고 요청했다. 총추위는 추천과 공모에 의해 지원한 후

보자를 검토하고 구성원 단체에 통보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구성원 단체별 추천 후보 3명(교수단체 2인, 직원/학생단체 1인)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법인은 보고된 후보 3명 중 1명을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하지만 의결된 2안에 대해 구성원 대표단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논의가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선거 방식의 절차가 아닌 투표 반영률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며 “75%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을 68%까지

양보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2안이 의결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최종 입장은 전체 대의원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 1노조 한상 위원장도 “2안 의결이 쉽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사회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다”며 “어찌됐든 구성원 손으로 뽑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주장했던 학생 투표 반영률이 확보돼 다행이고 올해 안에 새로운 총장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안 논의가 계속되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차선책 필요성을 주장해온 제 2노조 장백기 위원장은 “이미 오랜 시간 투표비율로 갈등을 겪어왔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투표비율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이사회에서 2안이 의결된 것은 총장 선출을 신속하게 이뤄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2안의 의결로 총장 후보 추천안에서 투표권을 얻지 못한 총동문회는 지난 18일 의결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회 의결 과정은 총동문회가 배제된 채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으며, 비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의결된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은 “그동안 회의에 참석해온 전병관 동문대표가 교수의회에 투표비율에 대한 타협안을 제출하며 양보하는 태도를 취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논의에서 동문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기에 지난해 11월에 합의한 투표비율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THE 세계 대학 순위 발표, 우리대학 종합순위 상승

정유나 기자 yunaight@khu.ac.kr

우리대학이 지난 11일 ‘타임스 고등교육’(THE :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2020 세계대학 순위’에서 국내 8위, 아시아에서는 31위에 올랐다. 종합순위는 351-400위에서 301-350위로 상승했다.

‘THE’는 QS(Quacquarelli Symonds)와 더불어 영국의 권위 있는 대학평가 기관이다. 교육, 연구, 논문피인용, 국제화, 산학협력 수입 등 총 5개 분야를 기준으로 대학순위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대학은 교육 33.8점, 연구 40.5점, 논문피인용 56.4점, 산학협력 수입 84.9점, 국제화 62.6점을 받았다. 교육 부문은 작년에 비해 0.1점 하락했으며, 산학협력 수입 부문에서는 2.0점, 국제화 부문에서는 2.1점 하락했다. 그러나 논문피인용에서는 무려 6.1점, 연구 부문에서는 2.2점 상승해 작년보다 종합순위가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는 92개국의 상위 1300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 중 국내 대학은 31개교다. 우리학교는 작년 국내 순위에서 나란히 8위에 올랐던 한양대를 제치

고 세계 301~350위에 랭크됐다. 우리학교보다 상위 250위 안에 랭크된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 성균관대, KAIST, POSTECH, 고려대, 연세대(서울캠퍼스), UNIST다.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을 제외하면 종합대학 중에선 5위에 올랐다.

THE아시아대학평가에서는 우리학교가 31위를 차지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서울대 9위, 성균관대 10위, KAIST 13위, POSTECH이 16위를 기록했다. 이어 고려대 19위, 연세대(서울캠) 21위, UNIST 22위를 기록해 우리학교가 국내 대학 중 8위에 올랐다.

지면안내

생명과학대학 장학금 논란
제도 하점 이용한 관행이 원인

▶ 3면

2019 PEACE BAR FESTIVAL
“기후변화 대처, 정치적 의지 모으기부터”

▶ 6면

알림

사령

〈명 정기자〉
장보경(언론정보학 2018)
한진석(한의예 2018)